



## 미국 셰일 생산량 확대가 어려운 이유

### 2Q26 Dallas Energy Survey

#### 유가 전망 전분기 대비 상황

**26년 말 국제유가 전망 \$81:** 미국 텍사스 인근 124개 기업 경영진의 26년 말 유가(WTI) 평균 전망치는 \$81로, 1Q26 전망치인 \$74 대비 7달러가 상승했다(조사 기간은 6월 9일~17일. 미국-이란의 협상 시작 이전 시점). 한편, 5년 후 WTI 전망치는 \$82(1Q26 \$79)로, 단기와 중장기 유가 전망치가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. 26년 말 미국 천연가스(Henry Hub) 가격 전망은 \$3.36로 오히려 1Q26 전망치였던 \$3.60 대비 하향 조정되어 2개분기 연속 하락했다.

### 보수적인 미국 셰일 기업들

####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부족과 정책 불확실성이 제약 요인

**고유가에도 보수적인 미국 셰일 업체들:**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와 호르무즈 해협 불확실성으로 인해 유가가 상승했음에도, 미국 셰일 업계의 반응은 신중하다. 설문조사 코멘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은 유가 상승이 구조적 수급 개선이 아니라, 전쟁/물류 차질/전력비축유 방출 등 일시적인 변수로 형성된 가격이라는 점이다. 따라서 공격적인 투자 확대보다는 현금흐름 방어와 투자수익률 확보를 우선시하고 있다. 단기적으로는 일부 유정 즉시 완공 및 제한적인 시추기 활동 확대로 생산량 확대가 나타날 수 있지만, 중장기적으로 공급 증가 폭은 제한적일 전망이다.

**미국 셰일 생산량 증가 제약요인:** 미국 페르미안 지역의 원유 생산량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은 1)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부족, 2) 정책 불확실성이다.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부족이 제약이라고 답한 인원이 85%, 정책/규제가 제약이라고 답한 인원이 65%였다. 원유 생산량이 증가하더라도 동반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처리 및 수송하기가 어렵고, 정권 변화에 따른 정책/규제가 불확실성을 높인다. 이제는 유가 상승 → 시추기 수 증가의 단순한 논리에서 벗어나, 고려할 요인이 많아지고 있다.

### 애널리스트 코멘트

#### 고유가 ≠ 시추기 증가

**국제유가, 점진적 하향 안정화 전망:** 아직은 온전히 해결되지 않은 미국-이란 협상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국제유가 변동성은 존재하겠으나, 수출 정상화 과정 및 재고 재축적 기간 이후 점진적인 하향 안정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. 다만, OPEC+와 달리 미국 셰일은 생산 증가에 제약 요인이 많아, 고유가에도 즉각적인 증산보다 수익성 높은 핵심 광구 중심의 제한적 투자로 대응할 전망이다.

그림 1. 26년 말 WTI 가격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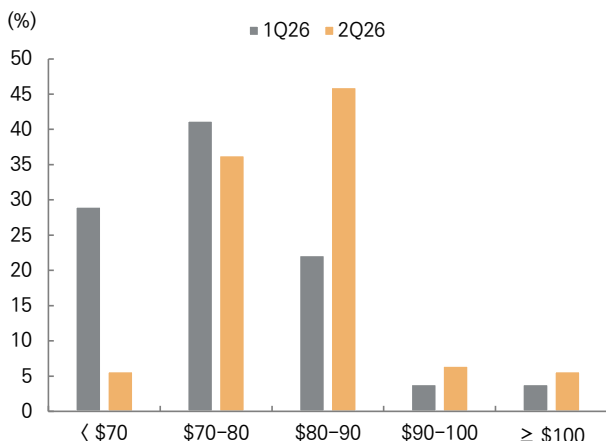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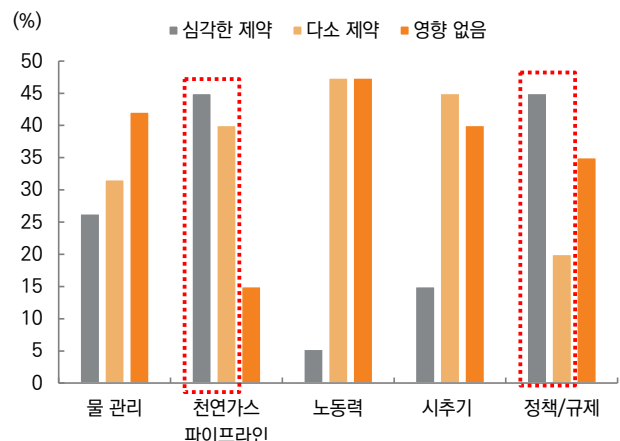


그림 2. 미국 페르미안 지역 원유 생산량 확대 제약 요인



자료: Dallas Fed Survey,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

자료: Dallas Fed Survey,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

**Compliance Notice**

- 당사는 본 자료를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